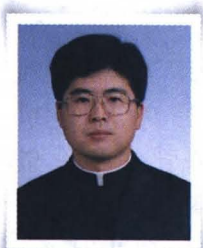


대림 제 2주일(인권 주일) 2007년 12월 9일 (가해)

강론 ...

기다림은 밝게



김병희 신부
(무주청소년수련관장)

우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주님을.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

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집안은 온통 대낮처럼 환하였습니다. 대문 앞에 불도 켜져 있고 거실도, 안방도, 모든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양 그러하듯이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철이 들어 보이는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 곁으로 오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기세도 많이 나올 텐데 왜 온통 불을 켜놓으셨습니까?” “응,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불하나 정도만 켜고 기다리시지 집안 곳곳에 불을 다 켜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 고된 일을 끝마치고 지치신 몸이 되어 집에 오시는데, 만일 멀리서 깜깜한 집을 바라다 보신다면 어찌겠니? 하루 종일 힘이 드셨던 아버지는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 집안을 바라다 보시면서 기운이 확 빠지실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멀리서 보신다면, 아마 힘이 드셨던 하루의 피로가 풀리면서 빨리 가서 우리들을 보셔야겠다는 마음에 힘이 나실거야” 그때 아이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환하게 켜 놓고 기다려야 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조그마한 방 하나하나에 불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 년 동안 어둠속에 담아 놓았던 어둠의 방에도 불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 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서 내 자신이 온통 밝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숲머리 생각



환난의 시간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 까? 너 따위는 하늘마 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시편 3,1)

인간이 겪는 고통이 많다. 어릴 때의 아픔은 교훈이요, 젊은 날의 괴로움은 경험이지만 나이가 들 수록 고통은 뼈저리게 다가온다. 꿈 많던 시절의 오색빛



희망은 사라지고 용솟음치던 젊음의 혈기도 식은지 오래다. 맞서거나 대항할 수 없는 말년의 괴로움은 서편 하늘에 찾아온 황혼의 쓰라림이다. 붉은 노을로 피었다가 어둠 속에 잠적하고마는 소멸의 아쉬움이다.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처량하다. 따르는 사람들의 목메인 소리도 구슬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날의 영화가 하루 사이에 환란으로 변했다.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던 손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백성이란 존재는 세찬 바람에 물결치는 파도와 같은가. 의인, 악인을 가릴 것 없이 그저 밀리는 대로 덮칠 뿐이다.

자식에게 쫓기는 다윗의 처지가 난감하다. 그토록 용맹했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내 놓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돌팔매와 욕설이 면전에 날아든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사무하 16,8)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독설이 가슴을 찌

른다. 그러나 뒤통에 걸려든 마당에 시비를 가릴 마음은 없다. 혹여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의 서글픔은 울분을 토해

낸다.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넘어뜨리려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 까?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처지가 곤궁한 자를 두고 몰아세우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들이다. 그러나 할 말은 없다. 죄 없는 자가 없고 지나온 어두운 그림자를 변명할 수도 없다. 모든게 죄 탓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다윗의 처지를 명상한 이 체험은 묘하게도 양심의 깊은 곳까지도 흘러 들어와 우리의 삶과 별개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분명 죄가 있고 갈등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그런 체험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심이다. 죄가 없다면 영적 투쟁은 간단하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이기에 그 끝이 광명일지라도 길이 험하고 괴로운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말에 개미 쳇바퀴 돌 듯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같은 일, 변화없는 일을 되풀이하여 반복한다는 뜻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을 내포하는 말이다.

살아도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일, 성과 없는 결과,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을 때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삶에 지치고 좌절감에 빠진다. 그러나 생각하면 그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는 삶일지라도 거기 돌발적인 불행만 없다면 그래도 행복하고 다행한 일이다. 무사 안온하고 가족들 건강하며 아침, 저녁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복된 삶이라 하겠다. 우리 주변엔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지치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지친다는 것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지쳐 쓰러진다는 것은, 그만큼 남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그 성과나 대가가 너무 적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허탈이며 좌절감일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라고 한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곁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다만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겹더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촉구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금석으로 삶의 걸림돌을 딛고 넘어

야 한다.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다.” 라고 했듯이 생의 그같은 걸림돌은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의미, 삶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신 지도 모른다. 그 위험 신호 앞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새 힘을 기르도록 타이르시는 무언의 말씀인지도 모른다. 무거운 짐 당신께 맡기고 그 샘물가에 잊었던 물맛 다시 맛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큰 뜻...

우리는 날마다 내 하나님께 매달려 “이 허망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새로운 시작을 마련할 힘 주소서”라고 빌고 청하자. 지친 삶을 위한 약을 그밖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에게 타이르는 자기와의 싸움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뿐이다.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무 위로 없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당신의 힘과 자비와 사랑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당신 품에 안으시어 보호하여 주소서.

어려운 나날을 잘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날까지 당신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문운성(라파엘)
영등동 신자

입당송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이야. 주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리니, 당신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시편 72(71),1-2,7-8,12-13,17(◎ 7참조)

◎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3,1-12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군산지구 말씀, 찬양, 치유 대피정



군산지구 성령쇄신봉사회는 지난 11월 27일(화) 군산나운동 성당(주임=조정오 신부)에서 말씀·찬양·치유대피정을 가졌다. 군산지역뿐 아니라 교구내 신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피정은 찬미와 '성찬의 신비를 사는 삶'을 주제로 한 강의, 치유기도, 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마산교구 총대리)은 미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미사 각 부분에 대한 해설, 성체성사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교리를 통하여 교회전례의 핵심인 미사와 성체성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날 미사는 유 몬시뇰 외에도 김용태 신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 안철문 신부(군산장에 인복지관장), 박병준 신부(군산지구장)가 함께 주례해 더욱 풍성했고 김신부는 군산지구 성령봉사회가 창립되어 '금요철야기도회' 등 그간의 활동을 회상하며 많은 신자들이 기도회에서 기쁨과 신앙의 활력을 얻도록 격려했다.

이오만 기자

● 신태인 성당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 원적없이 잉태되신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가 지난 12월 2일(주일) 교중미사 후에 있었다. 간단한 기도 후 시상식이 있었는데, 단체상으로는 평일미사 3개팀과 묵주기도 3개팀이 수상을 했고, 개인상으로는 성경 완독상 9명과 각 5명씩을 입교시킨 2명의 단원이 선교상을 받았다. 영적 지도신부인 김봉술 신부는 "각 빠레시디움 단장님은 단원들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품어 주어야 하며 단원들은 모든 신자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단원들은 점심을 같이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선숙 기자

● 금암동 성당 예비신자 파정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지난 12월 2일(주일) 성탄을 앞두고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 16명에게 피정을 실시했다. 이번 피정은 교중미사 참례에 이어 안그레고리아 원장수녀의 지도로 묵주 기도, 강의(신앙이란), 십자가의 길, 강의와 그림 작업(복음화), 피정 후 다짐 편지쓰기, 마침전례와 신부 강복 순으로 진행됐다.

이수도 기자

● 줄포 성당 바느의 성모님 축성식

줄포 성당(주임=이봉석 신부)은 지난 12월 2일(주일) 교중미사 중에 성모님을 모시는 축성식을 가졌다. 익명의 신자가 봉헌한 바느의 조그마한 마을에 조용하고 겸손하게 발현하신 기도하는 성모님이다. 이봉석 신부는 모든 신자들이 성모님을 본받아 항상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라는 뜻으로 바느의 성모님이라 부르도록 했다.

이선숙 기자

●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및 빈첸시오회원 1일 파정



지난 12월 2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전주교구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과 빈첸시오회원을 대상으로 1일 피정을 했다.

18개 본당에서 42명이 참석한 이날 피정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함께'라는 주제로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말씀의 전례, 강의와 식사, 묵상, 조별나눔과 발표, 그림작업 후에 파견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신태 신부(=전주가톨릭신학원장)는 '물고기 뱃속의 지혜'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요나서를 인용하여 "하느님께서 세상만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신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김현숙 안과 (전 한빛안과 원장)
안성형수술 (만병이상 경험)
사시 및 소이안과 수술 (이원성안과 원장)
파라용 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이저
Tel: (063) 226-1116
전주시 중화산동 본병원 옆 건물
3층 진료실, 4층 수술실, 안경원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순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웃음치료!
(출강합니다-자격증반 가능)
함께 웃는 동안에 '웃' 극복과 건강찾아 행복해져요.
예원예술대학 웃음치료 전담교수 김순자(베로니카)
T : 010-3115-6637, 253-7071(예원대)
완산구 서산동 40-31/3/3

결혼정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야가페)
적외선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티마트 야외주차장 앞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성지순례

127차 2008년 1월 2일~12일(10박 11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128차 2008년 1월 10일~23일(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찌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1월 저렴한 경비,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288-6666

대학종로약국

대학병원 처방 전문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종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 274-5424



● 만경 성당 본당의 날 행사

지난 12월 2일(주일) 만경 성당(주임=백수현 신부)에선 제7회 본당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구역에서 돌아가며 마련한 음식으로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군산 나운동 성당 형제들이 준비해온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관람하고, 전신자가 모인 가운데 강론시간에 배운 교리문답으로 일반교리상식을 되짚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삼천동형제가 들려주는 단가에 책상을 장구로 삼아 '얼췌' 하고 추렴을 넣는 모습이 연출되어 보기에 좋았다. [최진순 기자]

● 아중 성당 아뉴스 성가대 성가발표회

아중 성당(주임=전종복 신부) 아뉴스성가대는 지난 12월 1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주님 가신 그 길로'라는 주제로 제1회 성가발표회를 가졌다. 총 28명의 성가대원이 박종민 베네딕토 지휘자와 함께 8월부터 4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매주 2~4회씩 연습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성가 19곡 중 11곡을 악보 없이 노래했으며 수화까지 곁들인 아름다운 무대였다. 1번곡 '성령이여'를 시작으로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승천, 재림,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 연극처럼 펼쳐졌다. [홍보국 정리]

● 지곡 성당 대림 특강

지곡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지난 12월 3일(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과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대림특강을 가졌다.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초청 강사인 왕수해 신부(성바오로복지병원)가 '참 평화는 기다림에서'라는 제목으로 아기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의했다.

왕신부는 "우리들 각자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무한한 은총과 능력을 받을 것이며 그

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탄 때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대림시기를 보낸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내 축복 속에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 쌍교동 성당 대림맞이 특별 강론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지난 12월 2일(주일)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개신교 목사에서 개종한 김재중 요셉 형제(파티마세계사도직회장)의 미사중 특강을 통해 "성모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대림시기를 맞아 그 믿음을 본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대림시기를 지내며 내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갈것"을 당부했다. [강인식 기자]

● 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평가회 및 간부 연수

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지도=김진룡 사목국장 신부, 단장=강상근)는 지난 12월 1일(토)부터 2일(주일)까지 2007년도 평의회 관리와 운영평가 및 간부 연수를 천호 피정의 집에서 실시했다. 2007년도 실적평가와 김선태 신부(=신학원장) 및 지도신부의 특강, 분임토의, 2008년도 활동계획 발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선태 신부는 "다윗의 두 가지 잘못(2사무 11장, 24장)을 묵상하고 레지오 간부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강의했다. 김진룡 신부는 "레지오가 양적인 팽창보다는 구원의 현장 속에서 기쁨을 찾고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진순, 김용운 기자]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아)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한국정부자격보석감정사
미국GIA 다이아몬드 감정자격
미국MV보석평가사 직영
462-7777 www.G1.co.kr

수액 · 수세미죽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무농약 인증)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

제주 관광 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 · 호텔 ·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0-4566-6476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요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방상경시장~도청사이

☎ 222-0004

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박진성(루가)

입원상담 063)278-8288

서노송동 중앙성당 맞은편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병원장 김정연(안젤라)

입원상담 063)711-1111~3

효자동 효자프라자 옆

순교의 땅에서

♣ 고결한 순교의 땅, 여산

여로부터 여산은 땅이 비옥하여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깊은 산과 넓은 평야의 분기점에 있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천주교 박해 시대에 이곳은 충청도와 경기도지역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여산 부근의 금산, 진안, 고산 등지에 피신하면서 순교의 땅이 된다. '전주교구 제2의 성지'라 불리는 여산. 이곳 순교의 특징은 공동체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1868년 무진 박해 때 잡혀온 교우들은 옥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무수한 고문과 매질의 고통을 견디어 냈다.



이들이 굶주림과 혹형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형제적 사랑을 나누다 순교한 사건은 조선후기 전라도 천주교 역사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아 여산 순교성지가 지난 10월 '전라북도 제 125호 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무진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처형되었는데 기록에 남겨진 순교자는 김성첨(토마스)과 그의 일가 5명을 포함하여 26명만이 전해진다. 특히 여산에서는 백지사형(白紙死刑)으로 많은 교우가 순교하였다. 교우들은 얼굴에 물을 뿜고 백지 붙이기를 거듭하여 질식시키는 백지사형을 당하며 죽어갔다. 여산에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문초하고 사형선고를 하던 여산 동헌(도 유형문화재 제93호)과 백지사터가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그날의 아픔을 조용히 증언해주고 있다.

♣ 본당 활성화와 성지 개발의 '두마리 토끼 사냥'

이상섭 주임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여산 성지가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이런 영광을 안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성지 개발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1979년 취임한 박창신 신부는 여산 성당이 성지 성당으로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지회원과 은인들의 도움으로 성지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성지 개발 작업을 통해 1986년 성지봉헌식이 거행되었으나 열악한 본당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 신부의 취임으로 성지개발의 물꼬를 튼 것이다. 금년 1월 본당에 취임한 이 신부는 주일미사때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마침 딸기 농사철이어서 딸기가 하느님의 자리를 잠식한 것. 이 신부는 이러한 신자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미사참례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기도는 신앙의 끈임을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였다. 미사 참례, 기도와 더불어 본당 사목지침에는 성경 읽기가 첨가된다. 이 신부는 특히 어르신신자들을 위해 '듣는 성경'을 계획하고 있다. 테이프에 녹음된 성경을 한글을 모르는 신자, 바쁜 신자들이 귀로 듣고 친근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목자의 이런 노력으로 신자들은 미사 참례에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본당은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여산성지를 더 많은 순례객들이 찾을 수 있는 성지로 개발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상섭 신부는 "성지는 널리 알려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 잘 꾸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단 2~3명의 순례자라도 성지에 대해 정성껏 설명해주고 순례객들을 위해 공동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신자 대부분이 노년층이지만 비교적 젊은 50~60대 형제들로 구성된 바오로회에서는 성지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60~70대 자매들로 구성된 성모회에서는 순례객들의 점심준비와 젓갈판매, 각종 물품판매로 성지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여산성지가 전주교구 제2의 성지이면서도 개발이 늦어지고

는 복음의 참 빛

순례객들도 다른 성지에 왔다 잠깐 들러가는 정도여서 안타까웠다”는 장순선(69, 벨라뎃다) 성모회장은 단 몇 명의 순례객이라도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다며 환하게 웃음 짓는다. 여산 성지의 재래식 화장실은 가장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부분으로 성지개발을 위한 은인과 독지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도움 주실 분 신협 07011-12-000095 예금주 천주교유지재단)

♣ 자립과 자활의 지나온 여정

전라도에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한 여산에 성당이 세워진 때는 반세기 전인 1958년이다. 여산성당은 긴 역사 속에서 본당신자들의 인심 좋은 모습처럼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다. 본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관할 지역에 공소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은 1886년의 성치골이다. 성치골공소로부터 시작하여 9개의 공소가 차츰 설립되어 1897년 설립 된 나바위 성당 소속 공소가 되었다. 여산 지역을 관할하던 나바위 본당(주임 김후상신부)은 1951년 여산의 성지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여산지역 신자들이 뜻을 모아 성당건립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8년 10월 교구장 김현배 주교 집전으로 성전봉헌식을 거행하고 1959년 1월 본당(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영전 196번지)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900여명으로 시작한 본당은 전북 여산면 전역과 망성면 일부, 충남일부를 관할하는 전형적인 농촌 본당이다. 이농과 인구의 감소로 연로한 신자들에 의해 본당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자수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1120명, 17구역) 그러나 순교자의 후예답게 신앙의 뿌리는 깊은 지역이다.

♣ 열정과 희망으로 알차게 미래를 준비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젊은 지도자층이 없고 신자 고령화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산본당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본당은 여산 성지를 교구 제2의 성지다운 성지로 개발하려는 알찬 계획을 꿈꾸고 있다. 그러기에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을 위한 교육관 건립과 재래식 화장실의 교체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각지에서 순교자의 일과 순교정신을 이어받고자 줄을 잇는 성지 순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을 위해 본당은 발전기금을 신립 받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신부는 어려운 살림에도 봉헌정신이 높고 본당 사목에 적극 협조하는 교우들의 순박한 신앙심을 고마워한다. 순교의 터전에서 고요히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여산 공동체에 한 세기를 거쳐 온 신앙의 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사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전파 40년 ‘한우물’



무슨무슨 시험에서 1등을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는 공통되는 말이 있다. 바로 ‘교과서에 충실했다’라는 말. 그렇지만 그것을 달리 이해하자면 교과서에 충실했을 뿐이지 교과서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왜 똥판지같은 소리? 하겠지만 모든 신앙인들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찾아간 바오로딸 서원은 바로 그 교과서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참고서를 준비해놓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바오로딸 서원(중앙성당 옆)을 운영하고 있는 바오로딸 수도회는 1960년에 한국에 진출했다. 홍보수단을 통한 복음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모든 회원들이 출판 사도직을 비롯해서 음반/영상, 인터넷 선교 등 사회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모든 매체를 통한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 바오로딸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했던 해가 1960년이고 최초의 지방분원으로 전주에 발을 디뎠던 때가 1969년 이라고 하니 전주 바오로딸 서원은 이제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서원은 각 본당, 공장, 병원, 학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며 홍보활동을 벌였고 여러 가지 사정상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으로의 홍보활동이 어려워진 지금은 주로 익산, 군산, 고산 등 전주 바오로딸 서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일마다 직접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출판물과 음반, 영상물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 나는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을 통해 봉사자 60여명을 양성해 내

기도 했다. 현재 서일본당에서는 서원에서 파견된 수녀가 직접 어르신 성경공부를 함께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본당에서 양성된 봉사자들이 어르신 성경공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르신 성경공부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농촌본당은 공소간 거리가 멀고 이동수단이 불편해 어르신들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농촌본당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서원을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서적을 판매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불교신자나 개신교 목사들도 종종 서원을 찾고 이들과 대화의 장이 열리기도 한다고 한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바오로딸 서원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해진다. 바오로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홍보수단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 그 세상에 하느님 사랑을 알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 우리가 사는 전주교구에서 하느님 나라가 조금씩조금씩 넓혀져 가는 꿈을 꾸는 것이다.

가을 무렵에 바오로딸 서원에서는 ‘작고 소중한 성물 전시회’가 열렸다. 서원한켄에 그야말로 작고 소중한 그래서 더 마음깊이 다가오는 성물들을 전시했다. 앞으로는 이 전시회처럼 서원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에페 3,2)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성바오로딸 수도회 한분 한분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고 똑같은 재주는 아니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꼭 맞고 각자가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기도 한다.

취재 | 김동욱 기자

크리스마스의 휴전, 이념과 명분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 일깨워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참사는 지진이나 태풍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이념이나 명분일 때가 많다. 나치즘 같은 민족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념들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며 개개인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해 왔다. 바로 이러한 반성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주는

의미에서 찾는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Joyeux Noel, 2005)〉가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다.

1914년 제 1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지역에선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 프랑스, 영국(스코틀랜드)군의 숨 막히는 접전이 일어나는 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2월 24일, 그날도 눈이 내렸다. 일명 'No Man's Land(죽음의 땅)', 즉 살아있는 존재란 없고 오직 죽음만이 있는 땅을 사이에 두고 군인들도 여전히 춥고 축축한 참호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군 참호 속에서 잔잔하게 캐롤이 흘러나왔다. "그래, 크리스마스잖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자 맞은 편 참호에 있던 스코틀랜드의 군종신부가 판파이프로 반주를 해준다. 서로 노래와 연주로 하나가 되어 참호 밖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기어 나온 군인들은 서로가 감동했고 환호했으며 어느새 캐롤은 합창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처럼 참호를 걸어 나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적들과 악수를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고받는다. 이때 독일군 지휘관과 스코틀랜드 지휘관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이야기하고 프랑스군 소대장이 이에 응하면서 이들은 꿈같은 이름의 '크리스마스 휴전'을 갖게 된다. 이들은 '죽음의 땅'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서로 쓰아 죽인 전사자들을 위해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기도를 드린다. 담배를 나눠 피고, 서로 이발을 해주고, 서로의 가족사진을 돌려보고, 죽음의 땅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그들 어느 누구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것에 공감한다. 그들이 공감했던 것은 적군이기엔 '전쟁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그들은 똑같이 혹독한 전장에서 함께 고생하는 전우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왜 서로 총을 쏘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은 냉혹하고 이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정치

와 군사령부의 '평화'에 대한 정의는 달랐다. 결국 이들의 '작은 평화'는 각 군의 서신 검열과정에서 발각이 되고, 이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평화'는 철저하게 매국적 관점에서 징벌을 받고 철저하게 폄하되고 은폐되어진다. 프랑스군 소대장이 자신을 질책하던 장군에게 "당신은 나와 같은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군을 죽이라고 책상 위에서 외치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독일군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라는 항변과 스코틀랜드 군종신부의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미사를 인도했다고 믿습니다."라는 항변을 통해 명분과 이념을 넘어서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1914년 기적 같았던 크리스마스 휴전은 단 하루였고 그 이후 4년간 1천만 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사라졌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쟁의 비극과 잔인함을 그린 영화가 아니다. 민족과 이념을 초월한 아름다운 노래와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린 실화영화이다. 이 영화는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방대한 양의 전쟁 관련 자료들을 뒤진 뒤, 수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완성되었고 〈크리스마스 휴전, 큰 전쟁을 멈춘 작은 평화〉란 책으로 나온 영화이기도 하다. 한편 이 영화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묻는 영화이기도 하다. 전장에서 그들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공감하며 우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이다. 우연한 기회에 미리 볼 수 있었던 이 영화가 금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될 예정이라서 무척 반가운다.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



교구장 일정

- 무지개가족 냉난방 축복식
12월 10일(월) 오후 3시
- 재무평의회
12월 12일(수) 오후 2시
- 참사회
12월 13일(목) 오전 10시
- 성가복지회 이사회
12월 13일(목) 오후 2시
- 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12월 14일(금) 오후 2시
- 견진
12월 1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동산동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12월 10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성당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12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가정방문 미사
1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 사제아버지회
12월 14일(금) 진안군 마령
- 사랑있는 요심이 창립미사
12월 15일(토) 오후 4시 새교구청 강당
- 익산 하나회 미사
12월 16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성가대 지휘자연합회 송년간담회
-지도신부님과 함께-
12월 16일(주일) 오후 4시 새교구청 4층
문의: 011-680-6575 / 회비: 1만원
*식당 예약관계로 15일까지 연락바람

교육 · 피정 · 연수

- 대림절 피정
12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송천동
강사: 나궁열 신부
주제: 카인과 아벨의 제사
참가비: 5천원(식비, 간식비)
준비물: 성경, 복음성가, 필기도구
- 푸르실로 봉사자 교육
12월 15일(토) 친호
- 2008년도 제5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
기간:
1학기 2008년 3월 6일~6월 26일
2학기 2008년 9월 4일~12월 11일
매주 목 오후 2시~4시 30분 총 75시간
장소: 새교구청 4층 강당
접수마감: 2008년 1월 31일
수강료: 매 학기 12만원
문의 및 접수: 가정사무부
230-1030
가정사무 신부 김정민
016-654-2439

기타

- 이주사목 자원봉사자 모집
이주사목에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통역, 멘토(이주민 가정과 1:1 상담),
이의 함께해 주실분
문의: 010-9989-5189 송년호 신부
285-0041~3 이주사목센터
- 혼인강좌 장소 변경
2007년 12월 23일 강좌부터 새 교구청
(리베라 호텔앞) 4층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 전복종교예술제-혼의 소리
12월 9일(주일) 오후 5시
장소: 전복교육문화회관 공연장
(구 학생회관)

2008년 제 23차
세계청년대회(WYD) 참가자 모집

한국청년대회(KYD)
의 열기와 감동을 고스
란히 세계청년대회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젊은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08년 7월 10일~20일
장소: 교구의 날-(멜버른) 교구, 본 대회-시드니
주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대상: 만 18-35세 젊은이
(만 16세 이상도 가능하나 홈스테이는 불가함)
모집인원: 20명
참가비: 210만원
-항공료, 대회참가비: 185만원
(유가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구준비비: 25만원/계약금: 30만원(환불불가)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jaesigy@hanmail.net, 285-0041 신청
입금: 505-21-0457482 전복은행 김정현
모집기간: 11월 18일~12월 27일 전착순 접수

쌍백합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 홍보국문의: (063) 230-1037

‘쌍백합’ 정기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전복은행
505-13-0313012 전주교구유지재단

★ 쌍백합 전면에 광고를 원하시
는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새 교구청 사제관
성당에서 12월 10일
(월)부터 성무일도를
겸한 새벽 6시 미사
(월~토) 신자들도 참
례 할 수 있습니다.

◆ 초대합니다 ◆
무지개가족 냉난방시설 축복식
일시: 12월 10일(월) 오후 3시
장소: 무지개 가족
주례: 이병호 주교

2008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79명(정원의 14명포함) (정식 1과 1과
종교미술학과 24명 / 산업정보디자인학과 30명/
환경디자인학과 25명)
원서접수: 12월 20일(목)~25일(화)
문의처: 조형예술대학 교무과 032-438-8131~4
위치: 지하철 1호선 간석역 도보 5분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전형 신실 /
2008. 8. 8. 수도권제1외국인대학 입학

젊은이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월 24일(월)~25일(화)
장소: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문의: 011-519-3431,
053-313-3431~4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063-223-3822

프란치스코 의료봉사 수녀회
겨울성소피정

일시: 12월 31일~2008년 1월 2일(2박 3일)
장소: 전남 장성 수녀원
대상: 만 35세 미만의 젊은 미혼 여성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주 / 참가비: 없음
신청 및 문의: 02-723-1615(서울 본원)
010-3759-8226, 017-552-1114

3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마신부님(Rev. Brendan MacLale)
초·중생: 1/3-1/29(4주) 435만원
대학생: 1/6-2/17(6주) 599만원
문의: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가톨릭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운영 명문대학
필리핀 세부 산호세대학교
영어캠프 학생모집

●대상: 초·중·고 대학생(레벨반 편성)
●12월 20일, 27일 출발(0주, 8주, 6주, 4주)
●수학, 논술, 골프수업 등 특색화
프로그램 병행
●문의: 02-735-8840
산호세대학교 서울 사무소

메쥬고리아 9박 10일
순례단 모집

성모님과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
일시: 12월 27일~2008년 1월 5일까지
경비: 258만원 / 문의: 성모 마리아센터
한아오스탕 마리아 017-744-3292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약성경
입문과정(2년)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초월)
·원서교부: 인터넷,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접수: 2008년 1월 20일까지
(www.paulinebibel.or.kr)
·문의: 029440-819-824 성바오로딸수도회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입생 모집)

대상: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내용: 신규약성경 및 신학일반
원서교부 및 접수: 11.12~2008.2.15(우편가능)
문의: 02-745-8339(직), 02-747-8501~5(교)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삼성산 성지 2박3일 치유대피정

일시: 12월 14일 오후 6시~16일 오후 3시
장소: 삼성산 성지 대성전(무로 / 식사제공)
미사: 송광섬(베드로) 신부
02-874-6346
문의: 박노철(모세 바울) 회장
011-721-7808

남전주 지구 본당 소식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무실: 282-9661 주임신부: 나 춘 성
F A X: 282-9664 수녀원: 282-9662 사목회장: 한 기 성
E-mail: n422@chol.com

- ◎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 ◎ 성탄판공: 평일미사 전, 성사표배부 - 사무실
- 1. 축! 세례: 16일(주일) 교중미사 중
- 2. 대건회 총회: 오늘, 후6시, 부부동반.
- 3. LM 연차 총 친목회: 14일(금), 후6시30분
- 4. 환자 봉성체: 13일, 후2시 ※ 환자가 계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5. 성탄 제대꽃 봉헌받습니다: 접수 - 사무실, 이 글라라 수녀님.
- 6. 다음 주일(16일)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 7. 07년 교무금 및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완납 하여 주시고
08년 교무금, 센터 신축헌금 정성껏 신임 바랍니다.
- 8. 모임 ① 장우회, 대건회, 성우회-오늘, 교중미사 후,
재속형제회 - 오늘, 후2시
② 세실리아회 - 11일, 저녁미사 후
③ 성모회 - 12일, 어머니미사 후
④ 올드레아 - 16일, 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141,180원 ■ 교무금: 2,234,000원

문 정

주임신부: 221-9182 사무실: 225-9100 주임신부: 김 용 성
홈페이지: www.munjeong.org F A X: 225-9101 사목회장: 조 성 중

- ◎ 성탄절 맞이 꽃봉헌 받습니다. 사무실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금년도 교무금 완납해 주시고 내년도 교무금도 신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림절 특강 (두번째): 9일(주일) 교중미사 중
주제: 사회복지문제, 강사: 장상원 신부님
- 2.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14일(금) 후 7시부터
※ 흥겹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각 레지오별 많은 준비바랍니다.
- 3. 환자봉성체: 20일(목) ※ 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4. 신축헌금: 이옥님 6만 고맙습니다.
- 5. 감사헌금: 김재정 5만, 김요섭 10만 고맙습니다.
- 6. 성탄절 미사 및 행사 안내
① 성탄전야 밤미사: 24일(월) 밤 9시(새벽 6시미사도 있습니다.)
※ 성서필사자 시상이 있으니 미리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② 성탄절 미사: 25일(화) 전6시, 전10시(교중), 후4시(어린이미사)
③ 성탄예술제: 25일(화) 후 6시(초중고등부 행사)
- 지난주 봉헌금: 1,122,650원 ■ 교무금: 2,505,000원

복 자

주임신부: 286-3453 사무실: 286-3455 주임신부: 방 의 성
F A X: 288-3455 수녀원: 286-3454 사목회장: 구 본 장

- 1. 금주모임 ① 사목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요절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③ 성우회 - 오늘 교중미사 후
- ④ 자모회 - 오늘 교중미사 후
- 2.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12일(수) 오후 7시 - 병인관
- 3. 주간모임 ① 안나회 - 13일(목) 오전 10시
② 여성분과 - 15일(토) 오전 10시
- 4. 성탄 판공성사: 19일 까지 매일 미사 전, 후에 있습니다
※ 합동 판공성사 - 20일(목) 저녁 7시 30분~9시
- 5. 성탄 행사에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음주일부터 복자가족 성탄 나눔 복권판매가 있습니다.
※ 복권판매 및 기증품, 찬조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6. 예비신자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에 많은 인도 바랍니다.
※ 입교식은 내년 2월 17일(주일)에 있습니다.
- 7. 차주모임 ① 성인 복사단 - 차주 교중미사 후
② 전례분과 - 차주 교중미사 후
- 8. 전례안내
① 금주: 해설-최난희 독서-이성엽부부 복사-신일균, 장세환
② 차주: 해설-이정애 독서-김종오부부 복사-정기택, 김일호
- 지난주 봉헌금: 963,100원 ■ 교무금: 1,627,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사무실: 232-5005 주임신부: 문 규 연
보좌신부: 232-5002 수녀원: 232-5004 보좌신부: 전 보 근
F A X: 232-5003 사목회장: 이 계 윤

- 1. 성탄 판공성사: 성사표를 가지고 매 미사 전,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님 신부님 초빙 합동판공 성사 - 18일(화) 저녁 8시.
- 2. 대림, 성탄 판공 문제집 물동이 답안을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해주세요.
- 3. 레지오 마리에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오늘 교중미사 후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필히 참석바랍니다.
- 4. 오늘 저녁 7:30 저녁미사 후 무지개 인권영화 상영, 많은 참석바랍니다.
- 5. 거룩한 독서 팀 봉사자 모임: 11일(화) 저녁미사 후, 장소 - 성당
- 6. 함께하는 여정 교육 수료자 모임: 16일 교중미사 후, 장소-1층 교리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문정성당

상 관

주임신부: 285-6654 사무실: 285-6652 주임신부: 전 대 북
F A X: 232-6652 수녀원: 2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E-mail: sanggwancac@catholic.or.kr

- ◎ 세상에는 참 좋은 분들도 많고, 은혜 받을 분도 많습니다.
※ 성전건립 빛 청산에 도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 성당청소구역: 12월 14일 죽림, 소공동체
- 2. 병자성탄 봉성체 및 판공성사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12월 12일 오후 1시부터
- 3. 교무금과 신축헌금을 12월 말까지 봉헌부탁 드립니다.
- 4. 성탄판공성사 한분도 빠짐없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2월 10일 오후 7시부터 ~ 8시 사이에 줍니다.
※ 손님신부님 3분 오십니다.
- 지난주 봉헌금: 883,160원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무실: 286-4929 주임신부: 주 목 성
F A X: 232-9009 수녀원: 284-2276 사목회장: 유 원 장
홈페이지 http://www.seohak.net

-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소식지' 참조
- ◎ 서학가족 실천운동 -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 1. 판공성사 일정: 12. 11(화) ~ 21(금) 미사 전 · 후
※ 합동판공: 12. 18(화) 후 7시부터
※ 성사표는 사무실에서 개인, 가족별로 찾아가세요.
- 2. 빈첸시오회: 12. 9(주일) 교중미사 후, 소회의실
- 3.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12. 9(주일) 후 2시, 대회의실
- 4. 병자봉성체: 12. 11(화) 사무실로 신청하세요.
- 5. 성심회: 12. 11(화) 전 10시 30분, 대회의실
- 6. 청년회 영화상영: 12. 14(금) 후 7시, 대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1,302,070원 ■ 교무금: 829,000원

전 동

주임신부: 281-0098 사무실: 284-3222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282-7245 수녀원: 282-9234 보좌신부: 소 제 나
F A X: 282-6232 유 저 원: 284-8347 사목회장: 김 관 중

- ◎ 매월 둘째 주: 가정 주간 - 참된 가정 이루기
- 1. 성탄 판공성사: 대림절 동안 미사 전, 후와 12월13일(목)
합동판공성사 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 2. 2008년도 교무금 신임: 판공성사 전에 전 세대 빠짐없이 신납하여
주시고 금년도 교무금 조속히 봉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3. 성탄절 성가 대회: 제 단계 및 지역별로 실시합니다.
※ 지역 및 제 단계는 사무실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곡 1곡, 자유곡 혹은 자기자랑, 지정곡-카톨릭 성가 99, 101, 102, 107, 484장
- 4. 병자 봉성체: 12월 14일(금) ※ 미리 신청 바랍니다.
- 5. 성탄절 세례식: 22일(토) 오후 2시
- 6. 감사헌금: 이복희 누시아, 정희숙 테레사, 하태진 안토니오 각 10만원
- 7. 성전보수 헌금: 익명 4만원
- 8. 차 나눔: 금주-예루살렘회, 차주-사베리오회
- 지난주 봉헌금: 2,711,850원 ■ 교무금: 3,457,000원

- 7. 성탄 제대 꽃 봉헌: 뜻있는 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 8. 본당 보수 헌금: 익명 50만원, 신복순 5만원, 유금숙 3만원
- 9. 감사헌금: 첫영성체 어린이 일동 26만원, 김재주, 익명 10만원,
유금숙, 전현자 5만원 ※ 감사합니다.
- 10. 금년 교무금, 교구청 신축헌금, 애령회비, 사회복지 후원금, 제대회비,
자모회비, 성소후원회비 연말까지 완납 해 주시고 내년도 분도
신납바랍니다.
- 11. 다음주일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누구나 신학과 성서를 배울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2년제)

배워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신학과 성서를 공부하고픈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에게 전주 가톨릭 신학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1.모집학과

학 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면 접 일 시
교리부	교리교육과(주간)	50명	면 접 2008. 1. 19 (토) 10:00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앙연수과(야간)	50명	
성서부	성서교육과	50명	면 접 서류전형
	성서연수과	전주:주간150명/야간50명 군산:80명	

2. 지원자격

- 1) 수도자 및 평신도 남·여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2)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1년 이상 된 자(단, 성서연수과는 제외)

3. 원서교부와 접수

- 1) 기간 : 2007년 12월 3일(월)~2008년 1월 18일 (금)
- 2) 교부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교구청 1층 안내실, 각 본당 사무실
- 3) 접수 : 전주가톨릭신학원 (우편접수 가능)

4. 신입생 수업일시 및 장소

학 과		장 소	일 시	비 고
교리부	교리교육과 (주간)	신학원	수 10:00 ~ 16:00	교리교사 양성 (정)
	신앙연수과 (야간)	신학원	수 19:00 ~ 21:30	교리교사 양성 (준)
성서부	성서교육과 (주간)	신학원	화 10:00 ~ 16:00	말씀의 봉사자
	성서연수과 (군산)	나운동	월 10:00 ~ 12:30	성서입문
	(전주 주간)	신학원	목 10:00 ~ 12:30	
	(전주 야간)	신학원	목 19:00 ~ 21:30	

5. 신입생 개강미사 : 2008년 2월 22일(금) 10:30

※ 자세한 문의는 본당사무실과 신학원행정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행정실 : 063)255-2678)

전 주 가 립 립 신 학 원

